JIN-ME YOON 윤진미

HERE ELSEWHERE OTHER HAUNTINGS

2022년 4월 23일 – 7월 2일

kamloops art gallery

표지 사진: *Long View* series (세부 이미지), 2017,
크로모제닉 프린트 6장, 각83.8 x 141cm, 작가 소장품

JIN-ME YOON 윤진미

HERE ELSEWHERE OTHER HAUNTINGS

2022년 4월 23일 – 7월 2일

Here Elsewhere Other Hauntings 은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British Columbia 지역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캐나다 작가 윤진미의 첫번째 회고전이다. 졸리에뜨 미술관 Musée d'art de Joliette 이 기획, 배급하는 이 전시는 그녀의30여년에 걸친 작업과 작품 세계를 테마별로 구성했다. 이 전시는 작가의 한국 문화 유산의 관계성, 이주와 식민주의에 관한 경험, 그리고 이상적으로 그려진 캐나다의 현실에 대한 고찰 등 작가의 주요 관심사를 응축한 작품들로 꾸며진다.

윤진미는 1990 년대부터 사진과 비디오 작업에 해체 기법을 적용하여 정체성 형성 과정을 고찰해 왔다. 작가 스스로가 지칭하듯 이른바 '전해 내려오는 전형적 표현 방식들'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녀는 작품들을 통해 우리의 선입견을 붕괴시킬 실마리를 제공하고, 젠더, 모성애, 인종, 문화, 국적 등에 얽힌 우리의 예상과 편견에 비판의 날을 세운다. 윤진미는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영상을 만들던 중, 관람자가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시선의 대상이 되는 작가의 역할을 뒤로하고, 작가 자신이 작품 형성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에 천착하기 시작했다. 즉, 비디오 카메라는 시간의 흐름을 환기시키고, 체화된 주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As It Is Becoming* (2006/2008) 시리즈를 비롯 다른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두 나라의 공통 관심사인 관광 산업, 전쟁, 군국주의 등을 고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윤진미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관심사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녀의 가족사와 더불어 캐나다와 한국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식민주의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Here Elsewhere Other Hauntings 전시는 한국과 캐나다의 태평양 해안 지역 관광지의 환영이 품고 있는 과거사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를 포함, 윤진미의 최근작들을 연대순이 아닌 테마중심으로 소개한다. 작가는 관광 산업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징적 풍경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그 속에 내포된 근본적 이데올로기에 문제를 제기 하고,각각의 프로젝트는 역사를 전달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역사의 공식 서사속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에 천착하면서, 상징적 풍경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지배 권력의 역학 관계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작품속에 승화시켰다.

윤진미는 주로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회고전은 여기에 또다른 관점을 보탠다. 이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삶의 여러 단계들이 내포하는 상호 연관성이다. 이 주제는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의 초상에서, 효(孝)에서 우러난 제스처를 통해, 또한 영성, 죽음, 그리고 전인류를 아우르는 범지구적 단위로서의 자연을 생각하는 세심함으로 표현된다. 물론 이런 개념들은 보편적인 감정에 속하지만, 윤진미는 작품속에 작가 자신 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 친지를 등장시켜, 개념주의적 표현방식이 불러오는 감정배제의 미학을 모호하게 만들고 그것을 뒤흔드는 감성을 입혔다.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선입견이나 배제가 이론적인 차원의 경험을 넘어서 실제 일상 생활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앤-마리 생-쟝 오브레 Anne-Marie St-Jean Aubre, 현대 미술 큐레이터, 졸리에뜨 미술관 Musée d'art de Joliette

이 전시는 졸리에뜨 미술관이 만들고 배급하였으며, 캐나다 케벡 주정부 문화 정보 통신부 th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s Communications du gouvernement du Québec 와 졸리에뜨 미술 재단 the Fondation du Musée d'art de Joliette 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제인 어윈 Jane Irwin 과 로스 힐 Ross Hill 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캐나다 앨버르타 Alberta 주 밴프 Banff 에 위치한 밴프 센터 Banff Centre 의 초청을 받아 제작된 *Souvenirs of the Self* 시리즈는 관광산업 홍보의 주요 수단이며, 최근까지도 인기 관광 상품의 하나인 엽서 스타일의 이미지 여섯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엽서 뒷면에는 이미지 속 장소가 영어와 불어로 설명되어 있고, 서술자는 “그녀”로 지칭된 여자와 거리두기를 통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한다.

엽서의 설명 문구는 “우리도 이 지구의 관리인이다.” 라고 쓰인 만다린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메시지도 포함한다. 이 엽서 사진들은 북유럽풍의 옷차림을 한 동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을 캐나다 서부의 상징적인 풍경과 꼴라쥬 형식으로 병치시켜 관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밴프 국립 공원근처의 관광지에서 찍은 스냅샷?

각각의 이미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녀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고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여행도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캐나다처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왜 이 여자는 캐나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리고 포함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식은 무엇인가?

이 엽서의 이미지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있다. 원본 엽서들은 작가의 간섭주의 전략에 따라 처음에는 예술 작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이 원본 엽서들은 Long View 작품과 함께 제작된 엽서 시리즈와 나란히 전시된다. 재현된 엽서의 이미지들은 윤진미의 본래 의도를 상기시키듯 전시장 외벽에 붙여진다.

Souvenirs of the Self, 1991
여섯개의 엽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캠룹스 아트 갤러리 소장품. 작가 기증.

Long View, 2017
6개의 엽서 세트
«랜드마크 2017» 프로젝트 의뢰작품. 캠룹스 아트 갤러리 소장품. 작가 기증.

전시 설치 이미지, 캠룹스 아트 갤러리, 사진: 코리 홉 Cory Hope

오픈 갤러리 (Open Gallery) 아트리움 설치작

Souvenirs of the Self (로키 산맥 버스 투어 *Rocky Mountain Bus Tour*), 2019 (1991)

« 위대한 캐나다의 야생을 즐기세요. 관광객들이 출발하자 그녀는 그들의 안전한 귀향을 기원한다. »

Souvenirs of the Self (밴프 애비뉴 *Banff Avenue*), 2019 (1991)

« 수백년에 걸쳐 밴프Banff는 전세계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물 고르기가 쉽지 않다. »

Souvenirs of the Self (레이크 호수 *Lake Louise*), 2019 (1991)

« 빅토리아 여왕의 딸 루이즈 캐롤라인 앨버르타 공주를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딴 이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세요. 햇살 가득한 어느날 그녀는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의 이 호수를 발견한다. »

Souvenirs of the Self (뱅크헤드 *Bankhead*), 2019 (1991)

« 이 유서깊은 탄광촌이 벼락거지가 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찾아 보세요. 그녀는 이 폐광촌 건너편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된다. »

Souvenirs of the Self (밴프 온천 호텔 *Banff Springs Hotel*), 2019 (1991)

« 지난 시절로 사라진 유럽풍의 우아함과 위대함을 만끽하세요. 그녀는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통이라고 들은 것을 기억한다. »

Souvenirs of the Self (밴프 공원 박물관 *Banff Park Museum*), 2019 (1991)

« 캐나다 서부 자연사 박물관의 인상적인 소장품을 경이롭게 즐기세요. 그녀는 소장품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진열장의 저 단단한 테두리 너머의 인생을 상상해 본다. »

Souvenirs of the Self, 2019 (1991)
라미네이트된 폴리에스테르에 잉크젯 프린트, 각185.4 x 121.9 cm, 작가 소장품

이 사진 시리즈는 밴쿠버섬 Vancouver Island 에 위치한 퍼시픽 림 국립 공원 Pacific Rim National Park Reserve 촬영되었다. 윤진미는 *Repères2017/LandMarks2017* 프로젝트 작품 제작 의뢰를 받고, 끝없는 수평선의 아름다움에 묻혀버린 역사적, 감성적, 그리고 관광지의 정서를 담은 기억들을 끄집어 내기로 했다. 그 작업은 롱비치Long Beach 모래 사장에 구멍을 파는 행위로 구현된다. 엽서 세트로 만들어진 동 시리즈에서, 수미상관적 배치를 통해 첫 이미지와 마지막 이미지의 조응이 프레임 밖으로 확장된다. 이는 한 여자가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훑어보다가 타자의 궁극적 상징인 한 낯선 사람의 흐릿한 실루엣을 포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국립 공원의 북쪽 레이다 힐Radar Hill에 위치한 전쟁 기념비와 비슷한 크기의 모래 둔덕이 그 두 이미지 사이에 그려진 장면에 방점을 찍는다.

과거 군기지로 사용되었던 레이더 힐 Radar Hill 에는 2차 세계 대전과 냉전 Cold War 기간 동안 적들의 공습을 탐지하던 레이더 기지가 있었다. 이곳으로 가는 길목에는 한국 전쟁당시 1951 년 가평 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는데, 이는 해변가 모래 언덕의 이정표인 동시에 일종의 장례 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 밴쿠버 섬의 코목스 Comox 라는 지역에는 비행 중대를 갖춘 해군과 공군의 군사기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누챠눌 Nuučaaʼnułʼ [Nuu-chah-nulth] 원주민의 땅인 이 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곳에 군사 경비대가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법 이민, 마약 밀매, 환경오염, 불법 어업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외국 잠수함이 오가는 이 해안선 국경지역이 여전히 위협아래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외지인은 누구인가?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양도하지 않은 이 땅에 정착해온 과거와 현재의 이민자들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Long View series, 2017
크로모제닉 프린트 6장, 각83.8 x 141cm, 작가 소장품

세계 이차 대전의 종결은 한반도의 일제 점령기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일제의 천연 자원, 식량, 저임금 노동의 공급원이자 위안부 출력, 군수물자 생산의 근거지로 쓰였던 한국은 그후 첨단 테크놀로지 분야를 이끄는 세계경제의 리더로 변신을 거듭해 왔다. 윤진미의 부모는 창씨개명과 더불어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던 일본 식민주의 치하에서 자랐는데, 그녀는 부모가 한국전쟁까지 겪고 난 후인 1968년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했다. 윤진미는 일본과 한국에서 이런 가족사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 퍼포먼스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녀는 원폭 피해자들이 상처 치료를 위해 찾는다는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 벳부 Beppu 칸나와 Kannawa 지역을 마치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천천히 구석구석 기어다녔다. 위협적인 양의 증기 구름으로 뒤덮인 이 지역의 황폐한 건축물들은 한국의 북적이는 서울 거리와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윤진미는 진보의 미명 아래 간과된 폐해를 비판할 목적으로 이 퍼포먼스를 서울에서 했다. 초현대적 건물들이 즐비한 서울은 1960년대 이후 군사 독재 시절 이룬 놀라운 경제 성장의 상징이다. 이와 반대로, 그녀가 일본에서 택한 장소는 마치 행운의 여신이 등을 돌린 듯, 한때 미군 기지가 점령했고 온열 정수 처리장이었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원이다. 이 두 장소의 병치는 역사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몸체를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As It Is Becoming (2006 / 2008) 비디오 설치, 전시장 설치 이미지, 루인-노란다 미술관 MA Musée d'art, Rouyn-Noranda, 작가 소장품, 사진: 크리스티안 르듁 Christian Leduc

As It Is Becoming (*Seoul, Korea*), 2006
다중 채널 비디오 설치미술, 총2분 13초에서 5분 58초 사이

As It Is Becoming (*Seoul, Korea*): *Inverted City*, 2006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묵음, 총 4분 23초 (반복 재생)

밴쿠버 아트 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소장품, 서울 시립 미술관 the Seoul Museum of Art 소장품

윤진미는 고통을 감내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몸체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육체적 인내력을 시험대에 올려가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지는 기념비 형식으로 이 작품을 기획했다. 전시장에서 이 작품은 마치 돌무더기의 잔해가 널려 있듯 바닥에 배치되어 있고, 개념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제되지 않은 미학과 롱테이크 기법을 사용, 일본과 한국의 장소들을 가로질러 연결하면서 세대간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탐구하는 작가의 의도를 표현한다. 이런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총체는 전시장의 천장에까지 도달하는 일종의 분출이다. 윤진미의 몸체는 문자 그대로 이질적 존재로 그려지고, 때론 괴기스러워서 그녀가 그 장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녀의 몸은 이리저리 힘겹게 방향을 잃은 채 움직이고, 주변 환경의 수직성, 행인들과 차량들이 빌딩숲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춤사위와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행인들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붕대로 감싼 손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고투와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갈 길을 간다. 작가가 그런 상황에 온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않았다면, 반복에 의해 강조되는 이 장면의 부조화는 그저 놀랍고 때론 흥미롭기까지 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초래한 민간인들의 고통을 묘사하는 대신, 윤진미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억압된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 아픔을 몸으로 표현한다.

As It Is Becoming (벳부, 일본 *Beppu, Japan*): 공원, 구 미군 기지 *Park, former U.S. Army Base*, 2008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음향, 14분 24초 (반복 재생)

Ear to Ground, 2008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음향, 13분 25초 (반복 재생)

As It Is Becoming (벳부, 일본 *Beppu, Japan*): 온천, 원폭 피해 치료 센터 *Onsen, Atomic Treatment Centre*, 2008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음향, 4분 28초 (반복 재생)

As It Is Becoming (벳부, 일본 *Beppu, Japan*): 칸나와 지역 *Kannawa District*, 2008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음향, 22분 17초 (반복 재생)

작가 소장품

밴쿠버 섬 Vancouver Island, 퍼시픽 림 국립 공원 보호구역 Pacific Rim National Park Reserve 에 위치한 롱비치 Long Beach 에서 촬영된 *Testing Ground* 는 사무엘 베케트 Samuel Beckett 의 1981 년작 <쿼드 I과 II> *Quad I & II* 에서 영감을 받았다. 윤진미는 이 작품에서 소통의 부재속에 해변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일종의 부조리 발레를 만들고자 했다. 태평양을 배경으로 해변을 배회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개미 서식지와 비슷한 모양의 모래 둔덕 뒤에서 나타난다. 그 후 주변을 대충 살펴보고 해안선을 따라 산책하는 몇몇만을 남긴 채 나머지 군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영상속에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칠 때 들리는 소리는 평범한 일상이 폭탄 공습을 당한 듯한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퀀스에는 두개의 시간성이 공존한다. 그 중 하나는 우박 소리와 군인들의 환청, 신기루 같은 모습을 통해 재활성화된 세계 2차 대전과 냉전시대에 이 지역이 담당했던 군국주의적 임무를 소환하는 시간, 나머지 하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속에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매몰되어 버린 역사의 시간이다. 군인들의 단호한 움직임과 일반 행인들의 평범한 몸짓이 빚어내는 간극이 초조한 기억에 사로잡힌 듯한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배가한다. 이 장소는 포격 연습을 위해 쓰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땅은 그 모든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만 파도가 그 흔적들을 씻겨 내고 있을 뿐.

Testing Ground, 2019
단일 채널 비디오, 칼라, 음향, 총 9분 27초 (반복 재생), 작가 소장품

윤진미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친지들이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전쟁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얽힌 사연들을 들으면서 자랐고, 이는 그녀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들이 소일거리로 한강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표적삼아 사격 연습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힌 이 장면은 마치 시공간을 넘나드는 꿈처럼 구현된다. 두개의 이미지가 짝을 이룬 이 사색적 작품은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을 이야기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드리운 전쟁의 트라우마와 치유를 통해 그 아픔을 이겨내는 우리의 강인함을 상기시킨다.

(it is this/it is that), 2004
아크릴 표면에 코팅된 디지털 은염 인화 방식 프린트, 각 74 x 125 cm, 캠룹스 아트 갤러리 소장품,
캐나다 예술 위원회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미술 작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

Rest 는 인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인 효(孝)의 강렬한 초상이다. 사진 속 윤진미의 몸은 지면과 평행을 이루며, 그녀의 장성한 두 자녀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사진 배경 속 나무는 든든한 사랑의 기반인 믿음과 안정감을 발산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장을 함께하며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가 자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이 관계는 역전된다. 이 작품은 부모 자식간 서로를 보호해 주고, 돌봐주는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Rest (detail, 세부 이미지), 2012
크로모제닉 프린트, 148.6 x 121.9 cm, 작가 소장품
사진: 폴 리더랜드 Paul Litherland

한복을 입은 채로 둥둥 떠 있는 사람의 모습이 한강 Han River 인듯 보이는 강물을 따라부유하고 있다. 사실 그곳은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British Columbia, 캄루프스 Kamloops 근처에 있는 폴 호수 Paul Lake 다. 작품속에서 한강과 폴 호수는 합쳐지고, 기억의 흐름을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응축된다. 몸체는 강물의 리듬에 따라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때론 완전에 물속에 잠기기도 하면서 수면위를 떠다닌다. 이미지 중첩과 투명도 기법이 구현해 낸 아련한 몸체는 꿈과 현실을 보일듯 말듯 오가는 유령과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강물 위로 부유(浮遊)하는 이 여인은 그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죽어서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 표류하고 있는 것일까?

Unbidden (Channel), 2003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음향, 총11분 11초, 작가 소장품

윤진미의 최근작 *Dreaming Birds Know No Borders* 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지역에서 시간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찍은 자료 영상의 집합체이다. 코스트 살리시 Coast Salish 원주민들 소유의 양도되지 않은 전통적인 땅에서 젊은 한국 남자가 두루미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 춤을 추고, 이 영상에 등장하는 한국 여자는 멀리서 쌍안경을 통해 그를 바라본다. 또다른 장면에서는 한반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양분하는 38선 북구의 강어귀를 따라 야생보호구역이 된 남과 북 사이 비무장지대를 구경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토론토에서 발견된 VHS 테잎용 북한 영화에서 발췌된 자료 화면들이 현대적인 이미지에 더해진다. 영화의 손상된 화질은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 특히 남한에 있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북한에서 살게 된 한 조류 학자의 실화에 극적인 효과를 불어넣는다.

강한 적응력, 이동, 자유의 상징인 새들에게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 비디오에 나오는 이산가족은 새들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새들은 인간들이 만든 경계선을 원하면 언제든지 오고 갈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 사실은 또다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무장지대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종들의 야생보호구역이 되어버린 역설적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지역 개발에 있어 무조건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자연을 염두에 둔 선택을 하는 식의 관점 변화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감의 장을 만들어 화해와 과거 청산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그리움과 처절한 상실의 경험은 놀랍게도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의 기억속에 불어넣는다.

이 여자는 쌍안경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마치 작가가 암시하듯, 어쩌면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환경, 문화, 지정학적 상황 속에 뒤엉킨 현재와 과거에 묶여 있는 미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Dreaming Birds Know No Borders, 2021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음향, 총 7분 22초, 작가 소장품

인간의 조건을 정의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인 시간성과 공간은 윤진미의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왔으며, 근원, 전달, 고향, 소속감, 기억 등의 개념들에 의문을 갖게한다. 무한하게 보이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곳을 지키고 서 있는, 우리의 신체사이즈에 비해 거대해 보이는 나무들은 인간 수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런 자연적 요소들은 인간의 주관적 삶의 시간성에 비추어, 영속 불변(永續不辨)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성은 중심 요소로 다뤄지지 않지만 작가의 작품 전반을 아우른다. 이 작품에서 윤진미는 시간성을 통해 삶의 각기 다른 길목에 서 있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여준다. 두 이미지가 짝을 이룬 이 여섯 세트의 사진작품에서, 작가는 그녀의 아들과 혼비 Hornby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자신의 친구들을 강하지만 섬세하고, 캐나다 서해안의 울창한 해안 풍경 속에 묻혀 대자연의 품에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들로 그린다. 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진들은 서양의 낭만주의 회화와 동양의 수묵화를 연상시킨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수목과 자연을 존중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그리고 있다.

Living Time series, 2019
대지(臺紙)를 쓰지 않은 잉크젯 프린트, 미국산 솔송나무 프레임, 각66.4 x 76.5 x 3.8 cm, 작가 소장품

Other Hauntings (Song), 2016
단일 채널 비디오, 컬러, 음향, 총 7분 20초 (반복 재생), 작가 소장품

Long View 시리즈는 캐나다 화가 알렉스 콜빌 Alex Colville 의 대표적인 작품 *To Prince Edward Island* (1965) 와 구성 면에서 비슷한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두 작품은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보는 여자의 앞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윤진미는 그녀의 1990 년대 프로젝트에서 종종 다른 미술작품을 인용하는 차용 (appropriation) 을 통해 특정 문화의 정체성을 연상시키는 정형화된 표현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진은 콜빌의 작품을 연상시키지만, 윤진미는 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윤진미에게 이 장면은 비무장지대에서 적진을 정찰하는 대한 민국의 군인들을 연상시킨다. 한반도를 두동강내는 248km 에 걸친 비무장지대를 따라 백만명이 넘는 군인들이 양쪽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전세계를 통틀어 최대 무장 지역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이 곳은 해마다 전쟁의 위협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과연 이 상황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진은 어쩌면 그녀가 태평양을 넘어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주민들이 성지로 여기는 이 바위가 위치한 장소에는 2016 년부터 한국 해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중국군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요지로 미군이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수년간 이 섬의 주민들과 전 세계 환경 운동가들은 2002 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인정받은 이 지역의 취약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군사기지의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위를 벌여왔다.

Other Hauntings: A Geography Beloved (Dance) 와 *Other Hauntings: A Geography Beloved (Song)* 은 실험적 기법을 사용하여 핸드헬드 (hand-held)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이 기법은 작가가 주민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정겨움을 반영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그녀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감성적인 차원을 카메라를 통해 구체화시킨다. 가령, 이 비디오에서 한 마을 주민이 온갖 말과 몸짓을 다해, 군사기지 건설이 시작된 이후로 주민들을 깊은 시름에 잠기게 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쓴다. 이 때 작가는 이 마을 주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영어로 동시 통역 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녀는 머뭇거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통역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스토리에 공백이 생겨 결국 미완(未完)으로 남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병치(竝置)를 통해 이 작품은 강정 마을 사람들이 수많은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럼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 질문에 어느 환경 운동가가 답하기를, 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바위는 그저 다쳤을 뿐, 상처 가득한 수면 아래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을까? 한 젊은이가 물밑으로 가라앉은 성스러운 바위에 바치는 노래를 부른다. 구럼비가 사라졌다는 것을 믿지 않기에.

Dreaming Birds Know No Borders, 2021
단일 채널 비디오,컬러, 음향, 총 7분 22초, 작가 소장품

관람 시간 안내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매주 목요일 무료 관람 (BCLC 후원)

행정업무 시간 안내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연락처
250.377.2400
kamloopsartgallery@kag.bc.ca
kag.bc.ca

입장료
갤러리 회원과 6세 미만 어린이, 학생
(학생증 제시 요망) – 무료
성인 5불
가족 10불

캠룹스 아트 갤러리 Kamloops Art Gallery 는 스쿠에펨 Secwépemc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터전이며, 양도되지 않은 영토인 세쿠에피무루 Secwepemcúl'ecw 내 테쿰룹스 데 세쿠에펨 Tk'emlups te Secwépemc 에 위치해 있습니다.

캠룹스 아트 갤러리는 캠루프 시 the City of Kamloops, 브리티시 콜럼비아 예술 위원회 the British Columbia Arts Council,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방청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예술 위원회 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그리고 캐나다 연방 정부 the Government of Canada 의 재정적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1 – 465 Victoria Street, Kamloops, BC, V2C 2A9
주소: **kag.bc.ca**

kamloops
art gallery